

제 목	국 문 영 문	청력보호구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조선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wearing personal protective device for hearing conserv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영 문	이관형, 박정선, 이경용, 최정근, 김규상, 문영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 Kwan Hyeong Yi, Jung Sun Park, Kyung Yong Rhee, Jung Keun Choi, Kyu Sang Kim, Young Hahn Moon <i>Industrial Health Research Institute, KISCO</i>
분 야	환경	발 표 자 이 관 형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1995년 12월	

1. 연구 목적

특수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직업병은 소음성 난청이다.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전략들이 있으나, 청력검사로부터 발견되는 난청 의심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소음 폭로의 중단, 그리고 소음 수준을 측정하여 허용 기준 이하로 소음을 제어하는 제반 설치와 장치의 개발 및 설치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력검사와 소음 측정 및 제어 등과 함께 청력 보전을 위한 사업장에서 청력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와 청력 보호구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적절한 보호구의 공급 등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 소음 폭로 근로자들의 청력 보호를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음을 제어하는 기술개발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설비 투자 규모도 매우 커서 많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음 사업장에서는 소음 폭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소음 폭로를 감소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올바른 청력 보호구의 착용율을 높이기 위한 태도 변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력 보호구 착용과 관련된 제반 태도 변수들을 조사하여 청력 보호구의 착용을 높일 수 있는 태도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서 소음 특수건강진단을 받는 근로자로 하였으며, 전국의 10개 조선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태도 명제에 대한 동의 정도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조사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응답된 조사표를 연구자가 최종 확인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 규모는 353명이었으며, 조사 자료의 수집은 1995년 8월부터 9월까지 이루어졌다.

태도 요인을 파악하고 도출된 태도 요인들이 청력 보호구의 착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태도에 관한 임의의 문제들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각 문제들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75%이상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를 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청력이 나빠지면 정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청력 보호구는 소음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 작업장에서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소음으로 청력이 나빠진다면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소음으로부터 청력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상과 같은 태도 문제들은 주로 기존의 태도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개념에서 도출된 것들이다. 따라서 주관적 감수도(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특정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와 주관적 심각도(본인이 특정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느끼는 심각성), 예방행위로부터 기대되는 편익, 예방행위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 지식 등의 개념에서 태도 문제들이 도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26개의 태도 문제들에 대한 동의 정도는 9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요인에 대한 명명 작업 결과 주관적 감수도가 2요인, 지식, 보호구에 대한 관심도, 주관적 심각도와 청력에 대한 관심도, 청력검사와 소음 측정에 대한 관심도, 소음 제어와 청력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도, 보호구 착용 추진 및 장애 조건, 청력 피해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별되었다.

청력 보호구의 착용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크게 3가지로 구별하여 조사하였으며, 청력 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 건의와 의식적인 소음 회피 행동 등을 포함하여 인구학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및 태도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태도 요인 중에서 소음 제어와 청력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도, 주관적 감수도, 보호구에 대한 관심도 등이 조작적 정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음 제어와 청력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력 보호 위한 요구 사항, 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소음 폭露에 대한 의식적인 회피는 주관적 심각도와 청력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과 근무 기간 등은 유의하지 않았고 단 연령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많을수록 청력 보호구 착용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고찰

청력 보호구의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태도 요인을 중심으로 태도 요인들 중 어떠한 특성이 청력 보호구 착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건강 신념 모델이나 예방행위에 대한 설명 모델들은 이상의 주관적 심각도와 감수도 및 장애 요인과 인구학적 직업적 특성들을 경로모델로 설정하여 분석에 이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로를 무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요인들을 점수화하여 회귀분석에 이용하였다. 따라서 태도 요인간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수 있으나, 태도 요인들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조작화를 시도한 것이다.